

금년도 조사료 생산은 순조로울 것인가?

酪農草地課長 李 麟 炯
(農水産部 畜産局)

1. 머리말

소는 기르는 데는 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아직도 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농가도 있을 것이다.

송아지가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풀은 일체 급여하지 않고 농후사료로만 기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어려운 질문이다.

만약에 농후사료로만 송아지를 기른다면 초기에는 살이 찌고 비육이 잘되는 것 같지만 1년이 지나면 소가 마르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자연적으로 폐사하게 된다는 실험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이러한 결과 때문에 단기비육하는 경우에도 조사료를 주거나 섬유질을 섞어서 급여하는 것이다.

풀은 소 사육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식량이다.

금년의 풀사정은 어떠할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도 역시 어려운 것 같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순조롭지 못함을 느낄 수 있다.

지난해 월동기의 가뭄과 봄 늦게까지 계속된 차가운 날씨는 풀이 생육하는 데는 적당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풀을 소에게 급여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질 뿐 아니라 일정 면적당 생산

량이 낮아질 것이며 계획적으로 생산한 농가라 하더라도 생산량이 적어 충분한 양을 급여치 못하게 될 것이고 농사후로 의존도가 불가피하게 높아질 것이며 반면에 젖소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젖생산량이 줄어 들 것이라는 결론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하겠으며 그 대책을 내용으로 하여 설명코자 한다.

2. 기온과 강수량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부 이북지방에는 겨울에 충분히 눈이 내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자주 눈이 내린 것이지 강수량으로 따지면 예년에 비하여 크게 부족한 양이며 남부지방은 아주 가뭄이 심한 실정인 것이다. 물론 풀이 겨울에는 자라지 않는다 하더라도 눈이 덮어야 추위에 견디어 월동기간중 얼어죽는 경우가 없는데, 눈도 내리지 않고 추웠으므로 동해(凍害)를 입은 경우가 많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해 11월 이후 계속하여 예년의 온도에 비하여 저온상태가 유지 되었으므로 풀의 생육상황이 부진할 것은 물론 이러한 생육시기가 10~15일 지연되므로 풀의 생산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①

표1 강우량

(단위 : mm)

지역별		월별		'83. 10	11	12	'84. 1	2	3
		평년	당년						
서울	평년	48.4		42.9	24.7	20.6	28.2	49.0	
	당년		84.9	28.9	9.3	10.7	14.9	11.4	
강릉	평년	112.6		83.5	49.9	53.7	81.2	79.0	
	당년		137.6	13.4	51.9	28.7	40.2	25.3	
광주	평년	56.4		51.3	35.1	34.9	47.8	64.5	
	당년		34.3	47.0	11.6	12.1	14.1	9.3	
대구	평년	47.0		38.6	20.4	18.7	30.3	48.1	
	당년		52.3	3.0	1.5	0.0	8.0	12.2	

표2 기온

(단위 : °C)

지역별			월별		'83. 10	11	12	'84. 1	2	3
			최고	평년						
서울	최고	평년	19.6		11.3	3.6	0.7	3.4	9.2	
		당년		18.7	11.2	2.9	-1.8	1.3	7.2	
	최저	평년	9.0		2.4	-4.3	-7.4	-5.0	0.0	
		당년		10.1	2.5	-5.2	-9.4	-7.4	-1.3	
강릉	최고	평년	19.7		13.6	7.4	4.1	5.3	9.9	
		당년		19.6	13.6	6.9	2.3	3.2	8.0	
	최저	평년	10.3		4.7	-1.1	-4.2	-2.9	1.1	
		당년		10.9	4.1	-1.7	-6.1	-5.2	-0.3	
광주	최고	평년	21.1		13.8	7.0	4.2	6.6	12.1	
		당년		21.7	13.5	6.4	2.8	4.3	10.3	
	최저	평년	9.6		3.5	-1.5	-4.0	-2.6	0.8	
		당년		11.5	3.8	-2.7	-5.4	-4.4	-0.2	
대구	최고	평년	21.1		13.8	7.0	4.2	6.6	12.1	
		당년		21.3	13.5	6.7	3.1	5.1	10.7	
	최저	평년	9.2		3.0	-2.9	-5.5	-3.4	1.0	
		당년		10.8	2.3	-3.8	-6.9	-5.6	-0.1	

3. 생육상황

조사료의 생산이 어려울 것이라는 추정은 농가 여러분계서도 알고 계실 것이나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표3에서 보면 호맥보다는 이타리안라이그라

스의 작황이 좋지 않으며 특히 경남북지방이 더욱 심한 경향이다.

본 자료는 개략적인 조사치이므로 정확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경향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 또는 지대와 토양 조건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

표3 생육상황(84. 3. 25)

	호 맥				이 타 리 안 라 이 그 라 스			
	초장(草丈) (cm)		경수(莖數) 本/m ²		초 장 (cm)		경 수 (本/m ²)	
	적기과종	만기과종	적기과종	만기과종	적기과종	만기과종	적기과종	만기과종
평 균	12.2	8.0	746	530	11.2	6.5	1,103	588
경 기	11.2	6.7	746	396	-	-	-	-
강 원	11.7	8.1	727	541	-	-	-	-
충 북	10.7	6.6	812	490	-	-	-	-
충 남	11.6	7.9	787	578	6.1	4.7	1,387	1,202
전 북	13.5	8.8	652	534	14.6	6.5	716	1,269
전 남	16.5	10.5	1,041	797	19.5	10.8	1,929	1,278
경 북	8.8	5.8	581	412	5.4	3.4	599	330
경 남	13.5	9.5	620	496	10.2	6.9	884	626

4. 금년의 조사료 확보는 가능한가?

기온, 강우량, 사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금년의 조사료 사정은 현재로서는 봄부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특히 월동사료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는

첫째: 시비관리를 잘하여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둘째: 봄에 파종한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 종자를 확보하여 재배면적을 늘여야 하며 청예와 월동사료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세째: 가을에 청예옥수수 예취후 사료용 유채를 파종하여 호맥 파종전에 이용함으로써 가을 늦게까지 유채를 급여할 수 있어 옥수수 매초전초의 급여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고

네째: 초지면적에 비하여 소 사육두수가 적은 농가와 협의하여 조사료를 최대한 이용할 것이며

다섯째: '85년도 초봄에 일찍 청초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호맥이나 이타리안 라이그라스 등을 적기에 재배하되 파종면적을 늘리는 길이며

여섯째: 산야초의 청초와 전초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다.

이 외에 금년에는 기상여건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초지조성사업을 조기에 착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초생이 불량한 기성초지에는 보파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하였읍니다만 조사료의 사전확보만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으므로 금년에는 풀생산에 경비지출이 많이 들더라도 조사료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각 농가가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본다.

농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사료 증산 추진대책을 기술코자 한다.

5. 조사료 증산사업 추진대책 가. 현황

기온 및 강우량

구분	월별	83. 10	11	12	'84. 1	2	3	계
		강우량 (mm)	평년 65.1 당년 70.2	57.7 26.3	36.6 19.2	40.7 15.7	49.2 19.9	63.1 19.2
최저기온 (℃)	평년	9.2	3.0	-2.9	-5.5	-3.4	1.0	0.27
	당년	10.8	2.3	-3.8	-6.9	-5.6	-0.1	-0.55

※전국적으로 풀의 생육이 10일 정도 지연되고 있으며 겨울 가뭄과 한파의 피해로 식생이 불량함.

나. 예상되는 문제점

1) 봄, 여름의 조사료 생산량의 감소는 물론 월동사로 생산의 차질이 생김.

2) 예측할 수 없는 기상변화로 냉해 등 피해 발생.

3) 조사료 생산을 위한 농가의 종자 미확보

다. 추진대책

1) 조사료 증산을 위한 농가의 종자확보

종 자 별	대	책
사료작물종자	○옥수수, 수단그라스 및 사초용 유채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파종면적 확대 ○농가별로 확보 못한 농가에 대한 지도	-춘파용 옥수수종자 (사료용으로 수매한 국산 옥수수로 생산량은 신품종 옥수수에 비하여 81%수준임)를 약 300M/T 보유하고 있으므로 지역축협으로 신청('84. 4. 25일까지). -추파용 사료용유채 (옥수수 예취후 호맥 파종전에 생산 이용할 수 있음) 종자를 지역축협 또는 한국낙농비육협회를 통하여 신청하면 수입공급함('84. 5. 20일까지) -월동기 재배용 호맥종자도 지역축협 또는 한국낙농비육협회를 통하여 신청하면 국내생산 종자를 수매 공급하고 부족분은 수입공급함(84. 5. 20까지)
목 초 종 자	○지난 월동기 피해면적의 보파 및 준비 못한 신규조성자의 목초종자 확보 지도 -지역축협을 통하여 신청하면(84. 5. 20까지) 축협중앙회에서 도입공급함.	

① 각 도는 리·동단위까지 지급통보할 것이며 농촌진흥청은 시·군지도소, 축협은 지역 축협, 각 유업체는 집유선을 통하여 종자의 확보와 신청을 농가에 홍보토록 함.

② 농촌진흥청은 조사료로서의 사료용 유채의 필요성을 농가에 지도함으로써 조사료 부족시에 대비토록 함.

2) 초지 및 사육비 작물의 최대한 활용방안 검토지시

○ 각 시도에서는 초지조성을 하였으나 가축의 미입식으로 초지의 여유면적이 있는 농가에는 비배관리에 철저한 지도와 조사료가 부족한 농가와 생산증대를 위한 활용방안 강구

-청초의 공동이용 또는 건초의 계약생산 등

○사육비 작물의 청에, 건초, 매초 등으로 농가의 실정에 따라 적절히 이용토록 사전 지도하여 이용효율의 극대화 유도

3) 건초 및 매초증산 운동 전개

○관련기관은 금년 월동사로 생산의 어려움을 농가에 지도함으로써 목·건초는 물론 매초와 야건초의 증산운동을 전개함.

○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정하여 관계기관이 협조하여 추진함.

4) 각 도지사는 금년 하반기의 예측할 수 없는 기상변화에 대비하여 초지조성사업의 조기완료 를 추진토록 대책수립 실시

-'83년도에 파종시기가 늦은 지역은 대부분 냉해가 큼

5) 양축농가에 대한 지도홍보

○농촌진흥청은 금년의 조사료 생산의 중요성을 라디오, TV 등을 통한 농가방송 실시

-시, 군 지도소를 통한 부락단위 지도

-조사료의 생산, 이용, 경제성을 분석자료에 의한 농가지도.

○시·군 또는 유업체 등의 관련기관별로 농가 지도 실시.

라. 조사료 증산 확대를 위한 시상제 실시

1) 조사료 증산실적이 우수한 기관, 부락, 농가에 대한 표창 및 부상금 지급.

2) 재원은 축산진흥기금

3) 표창 및 부상금 지급방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도별로 좋은 의견이 있으면 '8

4. 30까지 당부에 제출할 것.

마. '84조사료증산 특별대책 수립.

각 도는 상기 내용을 포함한 '83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조성(낙농1163-1197: '83. 6. 27호)을 참조하여 각 도별, 지역별 특성에 알맞는 '84조사료증산 특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그 대책을 '84. 4. 30까지 당부에 제출할 것.